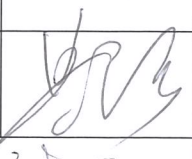


등록번호	의회사무국-3649
등록일자	2017.06.26
결재일자	2017.06.26.
공개구분	공 개

주무관	의정지원담당	의회사무국장	의 장
한재성	최정호	최광환	
협 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익선		

- 2017년도 남구의회 공무국외연수 -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귀국보고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目 次

I. 연수 개요	1
II. 세부 일정	3
III. 연수국 현황	5
IV. 연수 내용	11
○ 공식방문 및 시찰	11
- 오에이라스 시의회	11
- 카이사포럼, 수직정원	15
- 바르셀로나 22@ 혁신지구	18
○ 주요 현장 및 사례 탐방	23
- 리스본 알파마 지구	23
- 에두아르도 7세 공원	25
- 카보 다 로카	26
- 제로니모 수도원	27
- 스페인 광장	28
- 세비야 대성당	29
- 모로코 페스 메디나, 테너리	30
- 알람브라 궁전	32
- 성 가족 성당	33
V. 총 평	34

- 2017년도 남구의회 공무국외연수 -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귀국보고서

- 국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창의적인 의정활동 실천
- 포르투갈, 모로코, 스페인의 우수 시책(의회, 환경, 교통, 도시 재생 등) 견학 및 탐방기회를 통한 역량 강화, 견문 확대
- 시찰도시의 정책 및 우수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발굴·접목하여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I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7. 5. 22.(월) ~ 6. 1.(목) [9박 11일]
- 방문국가 : 포르투갈 / 모로코 / 스페인
- 주요방문지

국가별		주요방문지
포르투갈	5. 23.(화)	리스본 근교 오에이라스 시의회 타호강 하구 알파마 지구
	5. 24.(수)	리스본 문화탐방(제로니모 수도원 등)
스페인	5. 24.(수)	세비야 전통문화 탐방
	5. 2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알람브라 궁전)
	5. 29.(월)	카이샤포럼, 수직정원 시찰
	5. 31.(수)	바르셀로나 22@ 혁신 지구
모로코	5. 26.(금)	페스 문화탐방(메디나, 염색공장 등)

방문인원 : 1명 (의원 6명, 의회직원 4명)

○ 남구의회 의원 6명

소 속	성 명	성 별	비 고
남구의회 의원	이 봉 락	남	의 장
"	김 익 선	"	의회운영위원장
"	이 한 형	"	복지건설위원장
"	김 순 옥	여	의 원
"	박 향 초	"	"
"	양 정 희	"	"

○ 의회사무국 직원 4명

소 속	성 명	성 별	비 고
남구의회 직원	최 광 환	남	의회사무국장
"	최 충 호	"	의정지원담당
"	김 은 자	여	직 원
"	한 재 성	남	"

Ⅱ 세부 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제1일 5. 22. (월)	인 천 원 헨 리 스 본	LH 719 LH 1792 전용버스	12:15 16:45 19:25 21:30	■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원헨 공항 도착 ■ 연결편으로 리스본 향 ■ 리스본 공항 도착 후 숙소 이동
제2일 5. 23. (화)	리 스 본	전용버스	07:00 10:00 14:00 18:00	■ 조식 및 숙소 출발 ■ 리스본 근교 오에이라스 시의회 방문 ■ 타호(Tajo)강 하구 알파마 지구 시찰 ■ 석식 후 숙소 이동
제3일 5. 24. (수)	리 스 본 세 비 야	전용버스	07:00 09:00 13:00 18:00 19:00	■ 조식 및 숙소 출발 ■ 리스본 문화탐방(벨렘탐, 제로니모 수도원 등) ■ 리스본 - 세비야 이동 ■ 전통문화 예술관광 상품화 사례 탐방(플라멩고) ■ 석식 후 숙소 이동
제4일 5. 25. (목)	세 비 야 타 리 파 탕 에 르	전용버스 FERRY 전용버스	08:00 09:00 14:00 17:00 17:45 18:00	■ 조식 및 숙소 출발 ■ 안달루시아 지방 주도 세비야 문화탐방 ■ 세비야 - 타리파 이동 ■ 타리파 항구 출발, 탕에르 향 ■ 탕에르 항구 ■ 석식 후 숙소 이동
제5일 5. 26. (금)	탕 에 르 페 스 카사블랑카	전용버스	07:00 08:00 11:00 13:00 17:00 18:30	■ 조식 및 숙소 출발 ■ 탕에르 - 페스 이동 ■ 페스 문화탐방(왕궁, 염색작업장, 메디나 등) ■ 페스 - 카사블랑카 이동 ■ 카사블랑카 문화탐방(핫산 모스크, 광장 등) ■ 석식 후 숙소 이동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제6일 5. 27. (토)	카사블랑카 라 바 트 탕 에 르 타 리 파 말 라 가	전용버스 FERRY 전용버스	07:00 08:00 09:30 17:30 18:15 18:30 20:00	■ 조식 및 숙소 출발 ■ 카사블랑카 - 라바트 이동 ■ 라바트 문화탐방(모하메드 5세거리, 전통시장 등) ■ 탕에르 항구 출발, 타리파 항 ■ 타리파 항구 도착 ■ 타리파 - 말라가 이동 ■ 석식 후 숙소 이동
제7일 5. 28. (일)	말 라 가 그라나다 마드리드	전용버스	07:00 08:00 10:00 14:00 19:00	■ 조식 및 숙소 출발 ■ 말라가 - 그라나다 이동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알람브라 궁전) ■ 그라나다 - 마드리드 이동 ■ 석식 후 숙소 이동
제8일 5. 29. (월)	마드리드 톨 레 도 마드리드	전용버스	07:00 10:00 13:00 14:00 17:00 18:30	■ 조식 및 숙소 출발 ■ 카이사포럼 수직정원 시찰 ■ 마드리드 - 톨레도 이동 ■ 톨레도 문화탐방(대성당, 산토 토메 교회 등) ■ 마드리드 문화탐방(왕궁, 마요르 광장 등) ■ 석식 후 숙소 이동
제9일 5. 30. (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전용버스 A.V.E 전용버스	07:00 08:50 14:00 18:00	■ 조식 및 숙소 출발 ■ 마드리드 - 바르셀로나 이동 ■ 바르셀로나 문화탐방(성 가족 성당, 구엘 공원) ■ 석식 후 숙소 이동
제10일 5. 31. (수)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전용버스 LH 1131 LH 712	07:00 10:00 14:00 16:10 17:45	■ 조식 및 숙소 출발 ■ 바르셀로나 22@ 혁신 지구 방문 ■ 바르셀로나 출발 ■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 연결편으로 인천 향
제11일 6. 1. (목)	인 천		11:05	■ 인천국제공항 도착

III 연수국 현황

포르투갈(PORTUGAL)



일반현황

- 수 도 : 리스본(Lisbon, 인구 약 200만명)
- 인 구 : 약 1,070만명
- 면 적 : 92,131km² (한반도의 약 2/5)
- 주요도시 : 뵘르또(Porto), 꼬임브라(Coimbra)
- 주요민족 : 이베리아족, 켈트족, 게르만족 및 무어족 등의 혼혈 민족
- 주요언어 : 포르투갈어(Portuguese)
- 종 교 : 카톨릭
- 정부형태 : 반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 의 회 : 단원제(임기 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정치제도

- 포르투갈은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공화국이다. 국가원수로서 중재권 및 일부 행정권을 가지는 대통령, 입법권을 갖는 공화국 의회, 행정권을 갖는 포르투갈 정부, 사법권을 갖는 법원 등 네 개의 통치기관을 갖는다.

- 포르투갈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5년 임기로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포르투갈은 오랜 기간 여러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왔는데, 현재 포르투갈의 대통령은 정부 활동을 감독하고, 최고 통수권자로서 육군, 해군, 공군, 공화국 수비대 등 국군을 지휘하며, 대외적으로 포르투갈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세 역할을 수행한다. 공식적으로 리스본 벨렝 궁전에 거주한다.
- 국회는 리스본의 상벤투 궁전에 소집되며, 4년 임기를 가지고 선출된다. 현재 인원은 230명으로, 정당목록에 수록된 22개 중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규정에 의해 총선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의 지도자는 대통령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도록 요청을 받아, 총리가 되어 정부를 이끈다. 총리는 그 외 장관을 임명한다. 공식적으로 리스본 상벤투 궁전 인근의 총리 관저에 거주한다.
- 1975년 이후 포르투갈의 정치 구도는 사회당(PS)과 사회민주당(PSD) 두 정당이 주도해왔다. 이 두 정당은 민주주의 수립 이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통치 및 행정 업무를 나눠 갖고 있다. 그러나 몇몇 지방자치단체 수장을 갖고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산당(PCP)이나, 이미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통해 정권을 잡은 경험이 있는 민주사회중도국민당(CDS-PP)과 같은 정당 또한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좌익블록(B.E.)과 생태주의 녹색당(PEV)도 의회 내 의석을 갖고 있다

스페인(SPAIN)



일반현황

- 수 도 : 마드리드(Madrid, 500만명)
- 인 구 : 약 4,650만명
- 면 적 : 505,963km² (한반도의 2.3배)
- 주요도시 : 바르셀로나(Barcelona), 그라나다(Granada), 세비야(Sevilla)
- 주요민족 : 라틴족
- 주요언어 : 스페인어
- 종 교 : 로마 카톨릭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의 회 : 양원제(상원 265석, 임기 4년 / 하원 350석, 임기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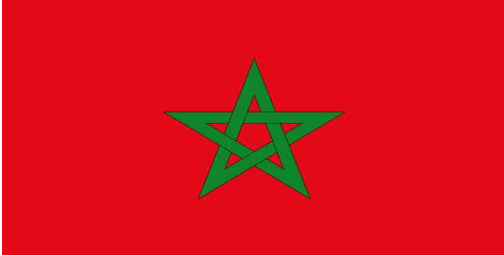
정치제도

- 스페인은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책임제 국가이며,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여 분권적 지방자치제도가 발달, 연방정부의 형태를 유지. 중앙정부는 국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해서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국왕은 국가원수로 국가존속과 통일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기구의 적법적인 업무를 주재 및 관장을 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

스페인 대표자로서 불가침 직위이며 모든 행위는 수상 및 각료에 의해 부서됨.

- 행정부는 내각책임제로서 내부와 외부의 정치, 시민행정, 군사행정, 국가안전보장행정을 통제하며, 헌법과 법이 부여한 권한과 기능을 수행. 정부는 수상과 몇 명의 부수상 및 내각각료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국가통치행위를 함.
-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차원의 각종 입법활동과 예산승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의 통제활동 및 기타 헌법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함. 상·하 양원은 임기가 4년으로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데, 상원(Senador)은 각 주(Provincia) 선출대표(208명) 및 광역자치주(Comunidad Autónoma) 선출대표(58명) 총 266명으로 구성, 하원(CONGRESO DE LOS DIPUTADOS)은 인구 비례에 따른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300~400 내외)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현재 총 350명임.
- 전국적인 정당으로는 현 집권당인 국민당(PP)과 사회당(PSOE) 등이 있으며, 그 외 각 지역별 정당으로 카탈루니아 민주당(CIU), 바스크 국민당(PNV)등과 당지의 까나리아 연합(CC, COALICION CANARIA) 등이 있음.

모로코(MOROCCO)



일반현황

- 수 도 : 라바트(Rabat)
- 인 구 : 약 3,290만명
- 면 적 : 446,550km² (한반도의 약 2배)
- 주요도시 : 카사블랑카(Casablanca), 마라케쉬(Marrakech), 웨스(Fes)
- 주요민족 : 아랍인(Arab), 베르베르인(Berber)
- 언 어 : 아랍어(Arabic), 베르베르어(Berber), 프랑스어(French)
- 종 교 : 이슬람교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의 회 : 양원제(상원 270석, 임기 9년 / 하원 325석, 임기 6년)

정치제도 (지방자치제도)

- 모로코의 정치는 입헌군주제로, 정부 형태는 국왕제(국왕은 3권 초월)이다. 국왕은 수상 임명권과 각료 임명권을 행사한다. 행정부는 의회 다수파 중 국왕이 지명하는 수상과 수상의 제청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된다.

- 모로코의 정체가 입헌군주제이고 수차례에 걸친 개헌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의정치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행정, 사법, 입법 3권을 초월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 2011년에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 결과, 2011년에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정치개혁안 발표와 7월 헌법 개정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에서 국왕은 국가원수 겸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유지하지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정부 대표의 지위를 부여한다.
- 과거 단원제이던 의회는 제4차 헌법 개정(1996년 9월 13일)에 따라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변경됐다. 하원은 임기 6년으로 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325석이다. 하원의장은 임기 3년으로 최초 의장선거 후 제3차년도 4월 정기 국회에서 의장이 교체되며, 각 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1년이며, 정당 그룹별 의원 수에 비례해 구성돼 있다.
- 상원은 임기 9년으로 지역 선거인단 대표에 의해 총 의석(270석)의 3/5을 지역별로 선출하고, 나머지 2/5 의석은 직능별 대표와 전국의 임금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출한다. 상원의원은 재선이 가능하며, 3년마다 1/3씩 교체(제4차 개정헌법에 의해 선출된 상원의원의 임기는 추첨에 의거 3년, 6년 임기 의원을 선출)되고 있다.

IV 연수 내용

공식방문 및 시찰

방문일 : 2017. 5. 23.(화)

리스본 근교 오에이라스 시의회	
명 칭	• Câmara Municipal de Oeiras
주 소	• Largo Marquês Pombal, 2784-501 Oeiras
전 화	• +351-(0)21-440-8300
홈페이지	• http://www.cm-oeiras.pt/Paginas/cmo_homepage.aspx
소 개	• 오에이라스시는 리스본시 서쪽 20Km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 45.88km², 인구는 172,120명(2015년 기준)이다. •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었으며, 포르투갈의 첨단산업지역으로 유럽에서도 유명한 경제도시로써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남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 등 총 7,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타구스파크 산업단지도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 시의원은 2013년 선거를 통해 선출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사진	 

관련 사진



○ 일반사항

- 포르투갈의 정치제도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정부 운영의 책임을 지며, 대통령도 어느 정도 실질적 권한(국회해산권, 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보유하는 독특한 형태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에는 아소레스와 마데이라의 2개 자치지역과 3단계로 구분된 지방정부(동, 시·군, 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도를 제외한 지방정부에는 광범위한 자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인 도 단위에서는 아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 오에이라스 시에는 타구스 파크라고 불리우는 대규모 IT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360ha 대지에 대학과 연구소, 기업, 레저문화시설이 자리했고, 그 가운데 200ha는 산업기술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기업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타구스 파크에는 관리팀이 특화돼 있고, 여기서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부대시설 등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타구스 파크에 입주하면 그곳에 있는 각종 경제단체, 연구기관, 은행 등으로부터 필요에 따른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기업이 앞 다투어 입주를 원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등 글로벌 대기업이 남유럽시장 공략 전진기지로 입주했고, 포르투갈 기업 40% 이상이 오에이라스에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포르투갈 고용의 27%를 차지할 만큼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 주요 질의 및 설명 등

- 오에이라스 시의회의 구성은?

- 포르투갈의 오에이라스 시의회 의원들은 4년 임기로 선출되었음. 올해가 임기 시작 4년째로 10월 임기가 만료되어 10월 1일에는 모든 지방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오에이라스 시의회는 주 1회 의회가 열리고 있으며, 시의원은 모두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정당에서 각각 선출되었다. 그 중 주민들로 구성된 정당인 협회가 있는데 이 정당에서 가장 많은 의원이 선출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다.

- 오에이라스 시의회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지?

- 오에이라스 시의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정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때는 사안별로 4개 분야로 나눠 회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오에이라스의 대표적인 정책이나 자랑거리는?

- 오에이라스 시의 한복판에 타구스파크라는 포르투갈의 첨단산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1986년 포르투갈의 EU가입의 계기로 1990년대 초 대규모 테크노파크 설립에 나섰고 리스본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의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용지 및 세금혜택까지 주어져 포르투갈 기업이 오에이라스 타구스파크로 몰려들어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IT산업단지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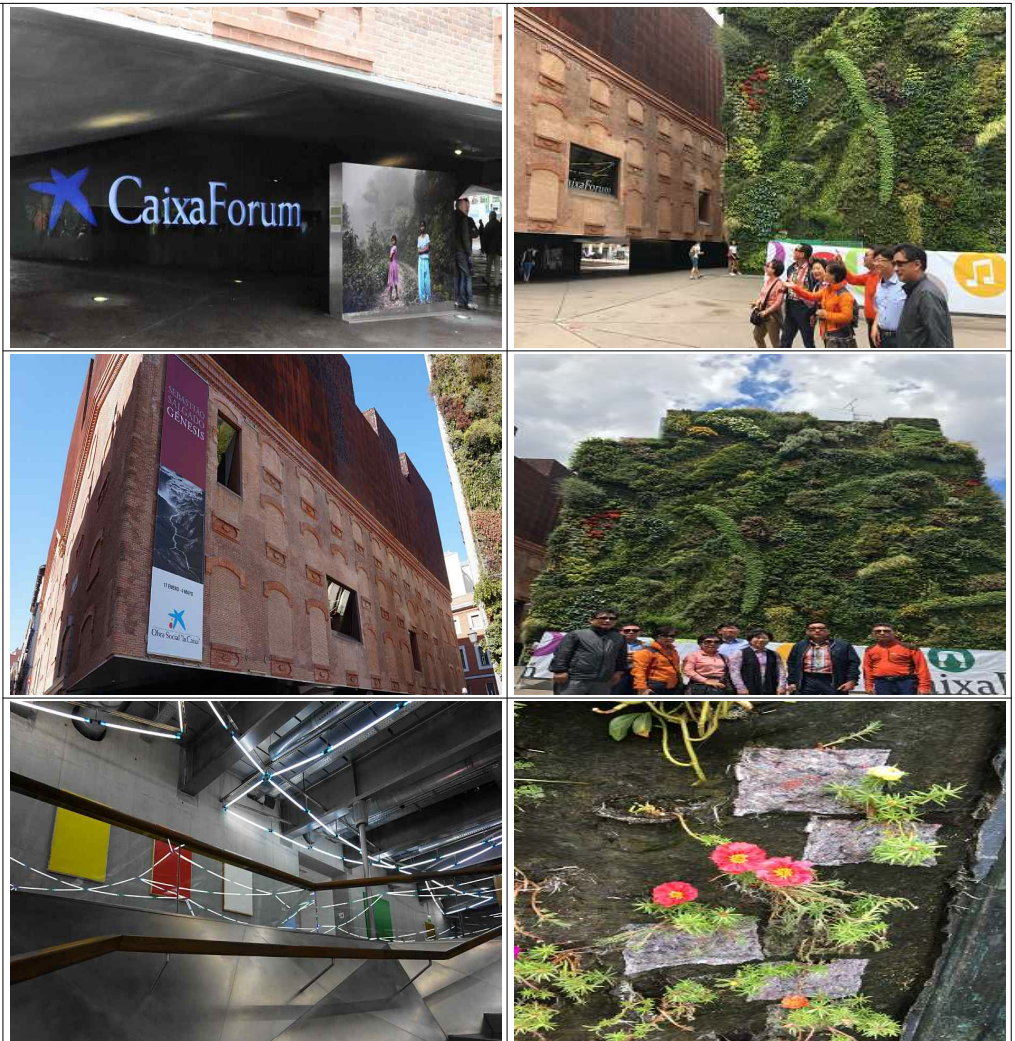
○ 방문기 및 느낀점 등

- 오에이라스 시의회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 다른 모습도 있지만 많은 비슷한 점이 있었다. 의회 활동은 우리와 비슷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갈등문제 해결을 제일 우선으로 손꼽는 것도 우리와 같았다.
-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 개발을 하고 법과 규정 안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등 의회의 활동은 비슷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의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방문일 : 2017. 5. 29.(월)

마드리드 카이사 포럼, 수직정원	
명 칭	• Madrid CaixaForum
홈페이지	• https://caixaforum.es/madrid/home
소 개	• 스위스의 건축가 그룹 헤르조그 & 드 뮌롱이 설계한 카이사 포럼(Caixa Forum)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앞 프라도 거리의 맞은 편 남쪽에 위치한다. 길 건너에는 마드리드 왕립 식물원이 위치해 있다. • 독특한 이름의 카이사 포럼은 바르셀로나에 근거지를 둔 스페인 최대의 금융그룹 중의 하나인 라 카이사(La Caixa)가 운영하는 도심 속 문화시설로서 공연, 전시, 강연, 세미나, 콘서트, 컨퍼런스 등을 무료로 운영하는 문화운동의 메카이다. • 기존의 자리에는 전력 발전소(1899년 준공되어 마드리드의 남부에 전력을 공급하던 시설이었다.)와 주유소 등이 있었던 보잘 것 없는 지역이었다. 용도 폐기되어 버려져 있었던 발전소와 주유소를 매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민에게 환원하려는 건축주의 뜻은 오롯이 헤르조그 & 드 뮌롱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이 건축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 • 그러나 옛 발전소는 너무 낡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고, 오직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벽돌 외피뿐이었다. 하지만 이 벽돌 벽은 마드리드의 초기 산업시대의 추억과 역사가 깃들여 있었고, 이들은 놀랍게 이 벽돌 벽과 새 건축을 결합하여 살려낸다. 게다가 이 건축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시도가 있다. 전면 주유소 자리의 낡고 흉한 건물 외벽을 녹색의 수직정원으로 꾸민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정원이란 평지에 조경과 식재를 통해 이루어진 수평의 정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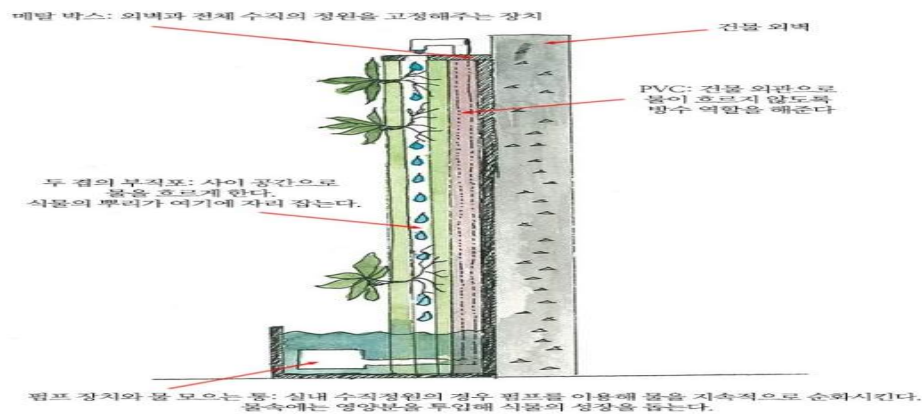
관련 사진



○ 일반사항

- 녹슨 듯한 금속의 붉은 색과 온통 식물로 가득찬 녹색공간이 묘하게 대조를 이뤄 시선을 사로잡는 카이샤포럼은 스페인의 카이샤 은행이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전시회 및 공연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근처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왕립소피아미술관, 티센 미술관과 함께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899년에 세워졌던 화력발전소를 카이샤 재단이 2001년 매입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2007년 오픈한 곳이다.

- 카이사포럼 옆으로는 아름다운 수직정원이 놓여있다. 식물들이 수직의 벽면에서 자라거나 설치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정원으로 리빙 월(Living wall), 수직 정원(Vertical garden), 그린 월(Green wall)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 수직 정원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프랑스의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이 자신이 연출한 벽을 이용한 정원을 ‘수직의 정원’이라 칭하면서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다.



○ 방문기 및 느낀점 등

- 옛 화력발전소를 지탱하고 있던 바닥의 돌들을 제거하고 마치 땅위에 떠 있는 듯하게 해서 만들어진 이곳은 굳이 이곳의 전시회를 찾지 않더라도 건물 밖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방문하는 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만들어진 수직정원은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고 탓할게 아니라, 웅한 수직 절벽면을 창의성을 발휘해 정원으로 꾸민 아이디어는 놀라웠다. 내부 공간은 더욱 독특해서 허름한 외관과 다르게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해서 저절로 만져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는 작품이었다.

 방문일 : 2017. 5. 31.(수)

바르셀로나 22@ 혁신 지구	
명 칭	• Barcelona Activa
주 소	• Sala 3F / 3rd floor Barcelona Activa Building Carrer de la Llacuna, 162-164, 08018 Barcelona
전 화	• +34-(0)93-401-9737
홈페이지	• http://www.barcelonactiva.cat/barcelonactiva/en/
소 개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2004년 문화 올림픽을 거치면서 한 단계Tir 도시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한 바르셀로나는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바르셀로나 시는 이 계획을 ‘뉴 바르셀로나 계획’이라고 부르고, 이 계획의 하나가 바로 ‘22@Barcelona’이다. • 22@지구는 바르셀로나 도심부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조업 산업단지였던 포블레노우(poblenou)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2@의 의미는 EU도시계획의 공업전용 지역 코드인 ‘22a’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종래의 용도인 공업전용지역(22a)에서, 주거 및 리서치센터, IT,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생·발전하여, 그 주변으로 효과를 확산, 발신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22@’으로 명명되었다. • 바르셀로나 미디어 센터 등 주요건물들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건물을 활용하여 업무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함께 지역명소로서의 랜드마크로 부각되고 있다.

관련 사진



○ 일반사항

- 바르셀로나의 면적은 10km² 이며, 인구는 1백 6십만명, 이 인구 중 외국인 수는 16%이며, 연간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7백 2십만명 정도라고 한다.
- 구 도시 부분은 예전에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으며, 이 구 도시 부분을 바르셀로나라고 불렀으나, 도시 확장으로 성곽을 무너뜨리고, 도시가 점차 확대되어져 갔다. 지금도 이 구 도시 부분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으로, 이 구 도시에 모든 도시 활동들이 집중되는 걸 분산시키기 위해 시청과 도청의 경우 시장과 도지사만 여기 본 건물에서

업무를 보며, 각 부서와 국들은 분산되어져 바르셀로나 도시 내에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한다.

- 22@ 프로젝트는 주택, 거리, 공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생산, 교육 및 훈련, 연구 등의 새로운 지식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다원화되어 있으면서도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압축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 녹지공간 증대, 신규 도시시설 설치, 신규 일자리 창출,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건물을 활용하여 업무 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 주요 질의 및 설명 등

- 인천 남구도 도시 재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바르셀로나 도시재생 사업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 22@지구 내에 있는 블록은 총 198개이다. 22@지구의 프로젝트는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거의 20년이 걸리는 시간이 걸렸으며, 약 60% 정도만이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한 블록 내에 최소 66%가 찬성을 해야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전 2000년에 22@ 프로젝트 시작을 위해서 거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데에 4년이 걸렸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22@ 지역이 예전엔 활성화된 공업지역이었지만 1965년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까지 대부분의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슬럼화가 됐으며, 빈

공장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주민 동의 및 개발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되었다.

- 재생사업으로 인해 기존 원주민의 이주 대책은?

- 22@지역의 개발의 기초는 다양한 주체들을 통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기존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주체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이용한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22@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현재 결과는?

- 22@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 2010년 이후 1천 500여개의 회사가 유치되었으며, 4만 5천여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됐다. 바르셀로나 시는 서비스업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9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 중 50% 이상이 22@ 플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미디어·에너지·의료기술·정보기술·디자인 등 5대 산업 분야와 관련 있는 업체들이다.

- 22@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 22@ 프로젝트는 단순히 도시재생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다양하면서도 균형 잡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로 다른 기능의 도시 및 산업시설들을 지역 내 건물, 녹지 공간 등과 배치하여 지역 내 고용과 거주환경을 향상시켰다.

전통제조업 산업단지를 과학·기술·문화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상호 관계를 증진시켜 지역 내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시켰다. 모든 주요 산업에는 ‘문화’가 필수 요소로 적용되어 폐공장 등 과거의 시설들을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만들어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접목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공간이 제공되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고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잡아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방문기 및 느낀점 등

- 바르셀로나는 주거지의 고급화 대신 공공부문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여 전체 면적의 70%를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고, 수변공간에 적합한 식재 및 주거지를 계획하는 것은 바르셀로나 도시의 오래된 경제 허브의 재활성화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수많은 회사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만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 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도심의 대중교통 혁신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재편하여 시민들이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보행공간의 확보가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시의 재생사업의 하나로 인식한 개발로 세계 최고의 재생도시로의 그 가치를 더 했다. 100년된 아파트가 즐비하고 수백년된 건축물이 많은 그 역사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도시를 재생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도시 재생사업의 모델이라고 보인다.

주요 현장 및 사례 탐방

■ 리스본 알파마(Alfama) 지구

- 방 문 일 : 2017. 5. 23.(화)



- 주요내용

- 알파마(Alfama) 지구는, 마드리드 동쪽에서 시작해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1천 7km의 타호(Tajo)강 하구에 위치한 알파마 지구는 오래된 빈민가였지만 지금은 연간 관광객 1,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 1755년 리스본의 모든 것을 갈아엎은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 때 유일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 바로 알파마 지역이다.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리스본이 현대화된 지금도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창문 밖에 널어놓은 빨래들의 행렬, 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들, 겨우 두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던 꼬불꼬불 골목길 끝에 탁 트인 대서양이 보이는 동네다.

- 알파마 지구는, 리스본의 하늘 위로 봉긋 솟은 상 조르즈 성 (Castelo de Sao Jorge) 동쪽 언덕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땅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리스본 역시 8세기경 '무어인'(Moors, 북아프리카계 이슬람교도)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당시 무어인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수백 년 후 공식적으로 무어인의 지배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그들의 혼혈 후예들은 계속 이 땅에 남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서민과 노동자 계층, 이주민 등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한다.

- 방문기

- 하늘 아래 빨간 지붕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알파마 지구는 리스본의 상징인 빨간색 28번 트램을 타고 올라야 한다. 알파마 지구가 좁은 길로 이루어진 언덕이 대부분이라서 구석구석을 달리기 위해 크기가 작은 구형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 트램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세월이 지난 골동품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과 옛 추억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70~80년대의 버스가 떠올랐다.

■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문화

○ 에두아르도 7세 공원

- 방 문 일 : 2017. 5. 23.(화)



- 주요내용

- 에두아르도 7세 공원(Parque Eduardo VII)은 1902년 영국의 에두아르도 (에드워드) 7세의 리스본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공원 위쪽에는 1755년 대지진 때 무너진 리스본의 잔재를 모아 분수대를 꾸미고 상징탑을 세웠다.
- 공원 끝에는 품발 후작의 동상이 우뚝 서있다. 그는 대지진 당시 총리였으나 폐허가 된 리스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옆에는 요한 바오르 2세가 1982년 이곳을 방문하여 미사를 올린 기념으로 세운 동상과 조화를 이룬다. 리스본 신시가지와 테주강이 시야에 시원하게 펼쳐진다.

- 방문기

- 경사진 언덕에는 기하학 무늬의 화단이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으로 리스본 시가가 한눈에 바라다 보였다. 잘 정돈된 정원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과 1755년 대지진의 참상을 보여주는 무너진 지진의 잔재를 모아 만든 분수대가 공존하는 공원에서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 카보 다 로카(Cabo da Roca)

- 방 문 일 : 2017. 5. 24.(수)



- 주요내용

- 까보다로까(Cabo da Roca)는 포르투갈어로 “로까 곳”이라는 의미이다. 이베리아 반도 유럽의 최서단에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이다.
- 유럽대륙의 서쪽 끝으로 포르투갈 리스본 서쪽 약 40Km의 대서양 해안에 있는 곳으로 먼 옛날 인도양 발견을 위해 처음 출항을 한 곳이기도 하다. 140m 절벽 위에 등대가 서 있고 포르투갈의 대표 시인인 카몽이스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 칭송하였고, 이 글귀는 서쪽 땅끝 마을을 상징하는 십자가 돌탑 뒤에 새겨져 있다.

- 방문기

- 까보다로까를 방문하기 전 위치가 우리나라 38선과 같은 위도인 38도라는 것과, 마치 제주도의 섬지코지와 닮았다는 표현을 들어서인지, 매서운 바람과,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높은 절벽을 보면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 끝에 서 대항해의 시대의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이 벅찬 경험이었다.

○ 제로니모 수도원

- 방 문 일 : 2017. 5. 24.(수)



- 주요내용

- 제로니모 수도원은 포르투갈의 왕 ‘마누엘 1세’가 엔리케 왕자와 바스코 다가마의 세계일주를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
- 1502년에 시공에 들어간 후 1672년까지 긴 세월을 거쳐 공사되었는데,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일부 파손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가로 길이 300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이 수도원은 외국 식민지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건설되었는데, 그 무렵의 포르투갈의 세계적 지위와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 주고 있다. 포르투갈 특유의 후기 양식인 마누엘 양식으로 198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방문기

- 멀리서도 한 눈에 안들어오는 압도적인 크기의 웅장한 모습과 가까이 다가가면 그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우아함에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게 된다. 과거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이 수도원은 예배당 2층의 창문과 건물 윗 부분만 일부 파손이 되었고 다른 부분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기에 빠른 복구가 이뤄졌다고 한다.

■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주도 세비야 문화

○ 스페인 광장

- 방 문 일 : 2017. 5. 25.(목)



- 주요내용

- 마리아 루이사 공주가 1893년 산 텔모 궁전 정원의 반을 시에 기증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루이사 공원이 만들어졌다. 이 공원 안에 스페인 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 1929년 라틴 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고, 건물 양쪽의 탑은 대성당에 있는 히랄다 탑을 본 따 만들었고, 건물 아래층 반원을 따라 타일로 장식된 곳은 스페인 모든 도시의 문장과 지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 준다

- 방문기

- 광장이라 하면 넓은 아스팔트만 생각했는데 현대적인 모습과 고풍스러운 모습을 둘 다 보여주고 있다. 광장 한 가운데 수로를 가로지르는 아치형의 다리는 아름다운 작품과 같았다. 다리 난간을 장식한 문양도 섬세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반원형의 형태로 광장을 둘러싸고 붉은색의 화려한 건축물이 스페인 광장의 위용을 느끼게 하였다.

○ 세비야 대성당

- 방 문 일 : 2017. 5. 25.(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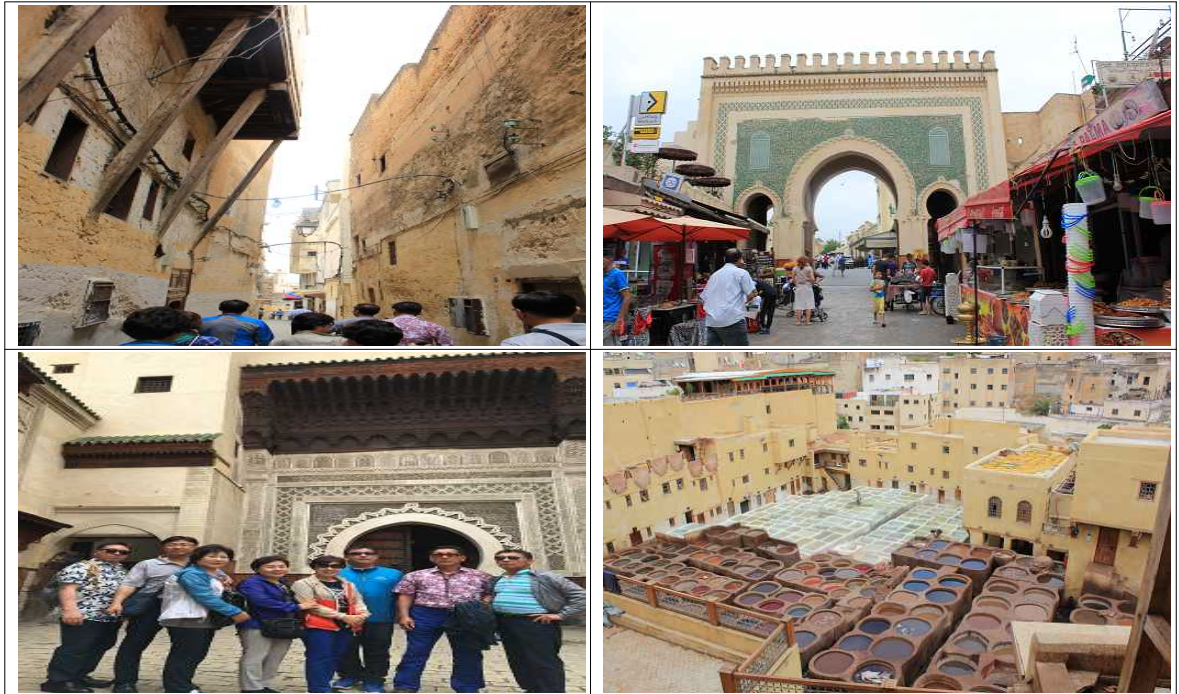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세비야는 스페인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 스페인에서는 4번째로 큰 도시이다. 투우와 카르멘으로 대표되는 세비야는 정열적인 나라 스페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이기도 하다. 세이아는 콜럼버스의 대항해시대에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오는 부가 집결되었던 도시로 그 영화로웠던 시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유적이 세비야 대성당이다.
- 세비야 대성당은 이슬람 모스크를 개조하여 건축한 것으로 1401년 건축을 시작하여 1519년에 완공했으며, 세계에서 그 규모면에서 3번째를 자랑하는 웅장한 성당이다. 대성당은 원래 12세기 후반까지 이슬람 사원이 있었던 곳으로 오랜 기간에 건축되어서 고딕, 신고딕, 르네상스 양식이 섞여 있으며, 각종 장식과 건물 구조에서도 이슬람 문양과 장식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세비야 대성당에는 콜럼버스를 비롯한 스페인 중세기 왕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기도 하다.

■ 모로코 페스 문화

○ 메디나, 테너리

- 방 문 일 : 2017. 5. 26.(금)



- 주요내용

- 1,200여 년 역사와 9,000여 개의 골목을 가진 구시가지, 세계 최대 미로로 알려진 모로코 페스의 메디나는 지금도 중세의 모습 그대로다. 메디나는 원래 이슬람 문화에서 ‘도시’ 또는 ‘성지’를 뜻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모스크(이슬람 사원)과 재래시장을 포함한 구시가 일대를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페스의 메디나는 중세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생활 터전이다.
- 거미줄처럼 얽힌 메디나 내부는 폭이 1~2m도 채 안 되는 골목들이 무려 9,000여 개에 달한다. 이 골목들을 직선으로 펼치면 그 길이는 무려 300km가 넘는다고 한다. 페스 골목길의 역사는 곧 침략의 역사

이자 생존의 역사다. 잦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골목길을 만든 것.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 옛 문명의 현장을 보는 듯 골목길에는 볼거리가 넘쳐난다. 금속세공품 거리, 의류와 생활용품 거리, 식자재 거리 등 다양하다. 북새통에서 어깨를 맞부딪치며 오가는 행인들, 봇짐을 실은 당나귀, 좋은 물건을 팔아보겠다며 즐기치게 따라다니는 호객꾼조차도, 어느 것 하나 못 본 척, 모른 척 피해갈 수 없다. 메디나는 사람과 가축과 온갖 물건들이 분별없이 뒤섞여 있지만, 현지인들은 ‘전통’이라는 질서를 따라 그 안에 조화롭게 공존한다.

- 방문기

- 메디나 안에는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면 건물에 빙 둘러싸인 골목 안에 숨어있는 테너리(염색공장)를 발견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로코의 가죽을 천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염색해 생산하는데, 작업하는 모습과 색색의 염색물들은 너무도 신기하지만, 가죽과 털, 동물의 비릿한 냄새에 착색제로 쓰이는 비둘기 똥까지 합세한 냄새는 무척 괴롭다. 그래서인지 방문자들에게 입구에서 박하잎을 준다. 테너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냄새에 대한 배려인 듯 하다. 테너리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에 놀라웠지만 옥상에 올라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테너리의 색색의 염색 약품이 들어 있는 수많은 둥근 통과 가죽 염색 공장의 풍경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팔레트와 같은 느낌이었다.

■ 스페인(그라나다, 바르셀로나) 문화

○ 알람브라 궁전

- 방 문 일 : 2017. 5. 28.(일)



- 주요내용

- 알람브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붉은색'을 뜻하는데, 햇볕에 말린 타피아(토담)의 색이나 외벽 쌓기에 쓰인 자갈한 자갈과 점토로 만든 벽돌의 색 때문에 이 이름이 붙은 듯하다.
- 안달루시아 지방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은 무어 왕조 시대의 요새 궁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세 아랍 건축물의 최고 걸작이다. 그라나다市 중앙 시에라네바다 산맥 해발 740m 산등성이에 위치하였으며, 너비 205m에 전체 면적은 142,000m², 성벽 길이 2km 규모로 이베리아 반도의 전설적인 난공불락 요새였다. 현재는 이슬람 건축 박물관이자 세계문화유산이다. 워싱턴 어빙의 '알람브라 이야기'와 작곡가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기타곡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이 궁전을 무대로 한 것이다

○ 성 가족 성당

- 방 문 일 : 2017. 5. 30.(화)



- 주요내용

- 성가족성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짓고 있는 로마 가톨릭 성당이다.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을 책임졌다. 가우디는 1883년부터 40년 이상을 이 교회의 건설을 책임졌으며, 말년의 15년간은 여기에만 매진했다. 1935년 스페인 내전으로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재개되었다. 1926년 가우디가 죽은 후 미완성 건물 일부와 성당 모형이 스페인 내전 와중에 부서지기도 했다. 아직까지 완공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은 완공 시기를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성가족성당은 어느 특정한 정부나 교회로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초기에는 개인에 의한 기부로 건설되었다. 현재는 여행객의 입장료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건설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V

총평

연수를 마치며.

- 이번 연수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모로코를 방문하여 서유럽의 도시계획, 교통망 운영, 안전과 미관을 겸비한 건축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함으로써 남구의 도시 개발, 건설 및 교통 정책을 고찰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다.
-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유럽의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도시 개발과 창의적인 정책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각종 사업들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시책을 펼치기 위한 의정 활동 및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오에이라스 IT 산업 육성

- 오에이라스라는 작은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 IT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있다. 1980년대 가난한 국가 포르투갈의 작은 도시에 대규모 IT산업단지인 타구스파크에 포르투갈과 오에이라스는 공격적인 투자로 IT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입주기업에 대한 입차료 면제, 저금리 무담보 대출 등과 각종 세금혜택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꿈꾸는 글로벌 기업들이 오에이라스를 전략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 차원의 최대 문제인 만큼, 남구도 남구 내의 산업단지, 대학교 등의 자원을 활용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남구 내 기업경쟁력 향상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의 지하도로 프로젝트



스페인의 도시들은 도로가 좁은 대신 지하차도를 잘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등 수백만의 인구가 살면서도 차량 혼잡이 심하지 않은 것은 발달한 지하철과 지하도로, 또 곳곳의 지하주차장 때문인 것 같다.

- 좁은 도로는 거의 일방도로이며, 일방도로의 한 쪽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곳곳의 도로 아래는 지하 주차장이다. 수백 년 된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를 부시고 새로 짓지 않으면서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스페인 마드리드시 도로재건사업의 가장 주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내부순환도로의 지하화가 추진되었으며, 강변간선도로를 지하화하여 녹지공간 등 공공부지를 창출하였고, 만자나레스강과 주변 지역 환경을 복원하였다. 또한 연간 440만 시간 이상의 통행시간 단축이 가능하여 향후 20년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감소, 연간 1,200만 리터의 연료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시지역은 공간적 한계, 용지 보상 문제, 공사 중 교통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도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공해 등 환경문제, 도시지역 내 문화 녹지 공간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개건사업인 내부순환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 바르셀로나 교통 정책



스페인의 보행자를 위한 인도 폭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차량이 아닌 사람의 통행을 중요시 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바르셀로나 22@ 지역에서 인상 깊었던 도로 폐쇄 방법을 알 수 있었다.

- 보행자 중심의 도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곳곳의 도로를 폐쇄하거나 차선을 축소하고 있다. 보행자를 우선 시하는 정책도 있지만 그 방법이 독특하다.
-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로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여 도로를 폐쇄, 축소하여 우회하도록 하고, 약 6개월의 긴 기간동안 교통량과 차량 흐름의 문제점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단순히 교통량을 예측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하여 추후에 각종 민원 발생 및 교통체증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미리 주민 동의와 의견을 묻고 있지만 지방의 경찰청이 심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로의 폐쇄, 축소, 확장을 결정하고 단순히 결과를 알리는 우리나라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바르셀로나 22@ 혁신 지구

- 바르셀로나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남구의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거주민의 문제이다. 주민과의 협의와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이 사업 추진에 동력이 발생하고 올바른 개발이 이루어진다.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는 그나마 슬럼화가 진행된 공장지대가 주를 이루어 도시재생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차근차근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 남구와 바르셀로나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는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는 것과 한 순간의 유행을 따르거나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내기 위한 어설픈 방식을 통한 개발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남구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름의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무관한 전시행정에 머물지 않고,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통해 겉모습만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